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한재권 요셉 (1836-1866)

'재덕'으로도 불렸던 이명서는 충청도 출신으로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유랑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몇 해 전, 전주 성지동에 정착하였다.

1866년 12월 5일 포졸들이 성지동을 습격하였을 때, 조화서가 피신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명서는 이를 뿌리쳤고 결국 전주 감영으로 끌려갔다. 당시 병든 몸이었으므로, 관장은 그를 배교시키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여 가장 먼저 신문하고 고문하였다. 하지만 이명서는 함께 체포된 교우들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순교의 뜻 또한 바꾸지 않았다. 마침내 12월 13일, 그는 5명의 교우와 함께 숲정사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46세였다.



성화_손수득 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어라, 신앙의 꽃)」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주님 공현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 환호송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목자와 동방 박사



목자들의 들판 성당



예수 성탄 기념 성당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광야로 둘러싸인 고장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그곳에는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방목을 했던 건 왜냐면, 농부들이 목자들을 경계한 까닭입니다. 애써 경작한 밭을 가축이 와서 망칠까 봐 농부들이 경계하였기에(예레 12,10 참조), 이동 생활이 가능한 목자들이 인적 드문 광야로 방목지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늘 목자가 많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접한 이들이 목자라는 루카 2,8-14의 서술도 딱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마태 2장에서는 유다 임금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맨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기준은 이스라엘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방향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의 전통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사제 계층으로 추정됩니다. '조로아스터'는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 '짜라투스투라'입니다. 동방 박사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읽던 점성술사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점성술사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임금도 도구로 쓰시고(예레 25,9) 때로는 이방의 점술로도 사실을 알려주십니다(예제 21,26-28 참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마태 2,1) 헤로데의 왕실에서 현인들의 조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6절).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성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밤새 양 떼를 지키다 천사에게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들판 성당'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성탄 기념 성당'입니다. 예수 성탄 기념 성당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마구간 터에 지어진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가 짓고, 6세기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재건한 곳입니다. 그런데 전쟁 많은 이스라엘에서 이 성당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동방 박사와 아기 예수' 성화 덕분입니다. 7세기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은 성화 속의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복장을 한 걸 보고 자기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 성당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가 보존된 이유가 참으로 극적이지요. 어찌 보면, 멀리서 메시아를 알아봤던 동방 박사들이 죽어서 그분의 탄생을 지켜준 셈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임금에게 하듯 아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예를 표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을 섬기던 그들이 초라한 아기에게 무릎을 꿇었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먼 곳에서 구세주를 알아보고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만나는 기쁨을 누린 동방 박사들은 이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이방인들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양 떼를 돌보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달려온 목자들은 이후 선한 목자가 되어 당신의 양 떼를 돌보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



의정부교구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께

2014년 한국에 사도적 순방을 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의정부교구 설립 20주년을 맞는 주교님과 교구 신자들 모두에게, 나의 영적 친밀감을 확인하면서 진심 어린 인사를 보냅니다.

주교님이 지난 20년을 회고한 대로, 나는 주교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비적인 업적들은 한국 사회와 보편 교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 전체의 젊음과 활력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의정부교구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교구의 모든 신자가 영적 쇄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고, 특별히 소외되고 가장 약한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에 담긴 진리와 사랑을 증언하는 복음 선교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주교님과 의정부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사랑 가득한 전구에 맡기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약속하는 나의 축복을 전합니다.



To The Most Reverend Benedictus Son Hee-Song
Bishop of Uijeongbu

With fond memories of my Apostolic Journey to your country in 2014, I send heartfelt greetings, together with the assurance of my spiritual closeness, to you and the entire Catholic community on the joyful occasion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creation of the Diocese of Uijeongbu.

As you reflect upon these past twenty years, I join you in giving thanks for the many graces bestowed by Almighty God in this period. At the same time, this milestone reflects the youth and vitality of the entire Church in your country as it continues to grow and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 Universal Church.

As you now look to the future, it is my hope that this occasion will inspire all in the Diocese to a spiritual renewal to follow Christ ever more closely and become missionary disciples who bear witness to the truth and love of his saving message, especially to those on the margins and the most vulnerable.

With these sentiments, I commend you and all the priests, religious and lay faithful of the Uijeongbu Diocese to the loving intercess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Mother of the Church, and I impart my Blessing as a pledge of peace and joy in the Lord.

Rome, Saint John Lateran, 5 December 2024

Francis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4년 12월 5일

Francis

작년 9월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 방문 때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에서,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는 의정부교구 설립 20주년을 소개하며 축하 메시지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교황께서는 의정부교구 모든 교구민을 대표하는 교구장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배우자와 함께 외출하는 날, 유리병에 물을 채워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그 물병을 꺼내 가져갑니다. 제가 신경 쓸까 봐 대신 가져간 거지요. 고마웠습니다. 저는 흥분한 마음으로 물병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맡겼습니다. 밖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만나질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저희는, 그런데 물병을 두고 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뽀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무거운 물병도 아닌데 굳이 가져가더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제가 어련히 챙겼을 텐데요. 배우자는 미안해하며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거리도 멀고 짜증이 나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엔 저도 플라스틱 물통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곰곰이 되짚어보니 ‘남의 물병을 맡아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무책임하게 잃어버리다니.’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산티아고 길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날, 작은 배낭을 안고 있는데 배우자가 그걸 짐 놓는 칸에 올려 주었습니다. 무겁지도 않은데 굳이 뭘 그러냐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고 내린 겁니다. 그때도 배우자는 미안해하며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당황해서 나온 말일 뿐 영영 가방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맡아준다고 한 거야.”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잃어버린 게 온전히 배우자의 잘못일까요? 저도 깜빡 잊었으면서 배우자 탓만 하는 게 과연 옳았던 걸까요? 저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언행을 마치 패턴처럼 반복하곤 합니다. “놀랐지? 할 수 없지 뭐. 아끼는 물건인데 속상하긴 하네.”라며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의 대화 습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제 언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와 허물을 무책임함으로 규정해 놓은 그 뿌리에는 ‘끝까지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일처럼 어느 책임을 맡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물병 하나를 실수로 잃어버렸을 뿐인데, 중대한 일을 책임지지 못한 죄인으로 여긴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았던 저의 그림자입니다. 실수와 무책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아내를 보면서 배우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잃어버린 물병이 준 교훈을 되새기며 새해부턴 잘못된 패턴을 고쳐보도록 애써볼 양입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실수와 허물을 눈감아 줄 수 있는 지혜도 청하면서요.

“침묵하는 것, 남의 말과 행위와 생활을 보지 않을 줄 아는 건 커다란 지혜다”(십자가의 성 요한, 「사랑에 대하여」 中). ●



교구 소식

2025년 신양교육원 겨울 계절 학기

일시 1/15~2/26, 매주(수) 19:30~21:40 [6주간]

장소 백석동 성당

대상 신양교육원 졸업생 선착순 100명 (대면)

회비 12만원 (대면/비대면 동일)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 정천 사도요한 신부, 이승엽 미카엘 신부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비대면 영상 강의는 누구나 신청 가능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신청 ▶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피정

일시 2/1(토) 15시 ~ 2(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성녀 에디트 슈타인과 함께 걷는 존재의 길

교재 에디트 슈타인,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가톨릭출판사

대상 누구나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2월

일시 2/7(금) 16시 ~ 9(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하느님 길을 걷다

강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서울대교구)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 한마음 사계 피정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ucatholic.or.kr - 교구소식 참조

신청 ▶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정약종관 미화 및 주방직원 모집

인원 여 ○명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147번길 15

근무시간 주 40시간

마감 채용시까지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ucatholic.or.kr - 교구소식 참조

[전시] 정은정 아가다 제2회 캘리그래피 개인전 <이끄심대로>

일시 1/4(토)~17(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월요일 휴관)





미사 · 피정 ▶▶

3.4지구 성령기도회 영성 피정

일시: 1/10(금) 13시~16:4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강사: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 두현자 올리아나

내용: 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3790-0496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7 김종국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눈꽃산행: 1/17(금)~19(주일),

1/23(목)~25(토), 2/8(토)~10(월),

2/14(금)~16(주일), 2/22(토)~24(월)

추라도포함성지순례: 3/1(토)~4(화)

생태순례: 3/17(월)~19(수)

문의: 064-756-6009, 02-773-1463

매월 첫화요 오후 피정 -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1/7(화), 2/4(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 (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2/14(금)~15(토), 3/8(토)~9(주일)

3박4일: 2/26(수)~3/1(토)

4박5일: 2/17(월)~21(금)

8박9일: 1/6(월)~14(화), 2/3(월)~11(화) [신학생, 일반]

40일: 4/21(월)~5/30(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일일피정

일시: 1/12(주일) 10시~14시 [09시 미사 참석 가능]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미아동 본원)

주제: 믿음의 순례길

내용: 강의, 성체조배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11(토) 10시 풍동 성당

1/18(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4(금)~22(토), 3/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및 1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1/6(월) 10시~16시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 (중식무료)

1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1/11(토) 12시~17:30

미사안수 (중식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2025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의 해

33일 봉헌 영성 강의: 매주(월) 10시~12:30

봉헌기도 (2025년도 총 12회 봉헌)

2차 봉헌: 12/16(월)~1/17(금), 피정: 1/20(월)

3차 봉헌: 1/22(수)~2/23(주일), 피정: 2/24(월)

장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지혜의 샘

문의: 010-3248-970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1/3(금)~6(월), 1/10(금)~13(월),

2/7(금)~10(월), 2/21(금)~24(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날짜: 2/7(금)~9(주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건강한 고1~35세 미만 미혼 남성

접수: 1/31(금)까지

문의: 010-6221-3520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1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010-2127-0032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거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14(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직원 채용

분야: 후원 관리 및 홍보 1명 (계약직)

접수: 1/17(금)까지, 이메일 caritas@cbck.or.kr

문의: www.caritas.or.kr

2025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교리학과 (주간, 주5일)·종교학과 (야간, 주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과정 (주간, 주3일): 1년 과정,

본원 졸업생(통신과정 포함) 및 준한 과정 이수자

접수: 1/17(금)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ac.kr

※ 15명 미만 지원 학과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청 행사,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이콘연구소 제23기 신입생 모집

이콘 제작 및 연구 [3년 과정]

실기: 2/22(토), 24(월) 10:30

개강: 3/4(화) / 대상: 만 65세 미만

장소: 가톨릭출판사 신관 6층 (중구 중림로27)

지도: 장공선 예로니모 신부

문의: 02-313-9973

선교아카데미 제14기 교육생 모집

날짜: 3/6~8/28, 매주(목)

장소: 한국외방선교회 본부 (서울 성북동)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비용: 80만원 (식대 포함)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2025 예수회 청년 마지스서클 3기 모집

이냐시오 영성 배움터: 첫모임 2/22(토) 14시

(2~7월 월1회 배움터)

여름 제주 마지스 대회: 8/5(화)~12(화)

(3일간 파견체험 포함)

대상: 33세 이하 청년 / 회비: 50만원

지원: 신청링크 통해 접수 (면접선발)

문의: magis.kr@gmail.com, 인스타그램 @magis_kr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직원 채용

분야: 영어권 이주민 관련 업무 (상담, 통역)

인원: 1명 / 접수: 2/13(목)까지

자격: 영어 사용, 영문서 작성, 운전면허 소지

문의: 031-948-8105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교구소식 참조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오디션: 1/19(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명동대성당 홈페이지-단체모집 참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직원 채용

분야: 생활재활교사
자격: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인원: 〇명 (채용시까지)
문의: 031-965-0028
※ 자세한 사항은 www.haemil.or.kr 참조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16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신자이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희망하는 분
접수: 2/28(금)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담당
010-3207-2525 지구봉사자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8~5/17,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8~11/1, 매주(토) 09시~18시
인원: 봉사자 50명, 자격증반 30명
장소: 신양교육원
문의: 031-874-6272, <http://cafe.daum.net>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시스피나음악원(신촌) 수강 모집
그레고리오 성가: 지휘, 반주, 기초
문의: 010-9842-8818

예수회 센터 불학기 강좌 - 3월 개강

월요피정(무료): 성경의 인물과 이야기들2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 토라, 제국, 하느님의 나라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단테<신곡>지옥편: 배신과 우정
구약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해설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예수님의 파스카 그리고 새로 나는 삶
각 10~12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안내봉사 [주1회, 3시간]
대상: 40세~65세, 심신이 건강한 남녀
문의: 02-2030-3456 자원봉사센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활동운영팀)
접수: 2/16(주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 소정의 수고료 지급 (채용시 마감)

안내 · 기타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2025년 살레시오수녀회 영성사목 프로그램

성경 속 여성 영성강좌: 매월 둘째(화) 10시~13시
살레시오 예방교육 (신앙과 자녀교육):
매월 셋째(화) 19:30~21시
장소: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문의: 010-3866-2248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24(월)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동반자 할인, 500만원)
4/22(화), 5/13(화) 이탈리아 (11일, 동반자 할인, 415만원)
5/3(토) 체코, 폴란드, 발칸, 메주고리에 (15일, 57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1025만원)
5/20(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6/5(목) 올트레아 로마 세계대회 참가단 (12일, 550만원)
문의: 010-3866-2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교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7(금)~18(화) 희년 이탈리아 (대한항공, 455만원)
3/9(주일)~20(목)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1(화)~12(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4/5(토)~16(수) 희년 이탈리아 (독일항공, 435만원)
문의: 02-2281-9070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날짜: 4/24(목)~5/5(월)
장소: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성 베네딕도 수도원 전례&성지순례

2/15(토)~17(월) 대구17
3/1(토)~4(화) 전주11~광주4
3/15(토)~18(화) 부산8~마산6
4/23(수)~27(주일), 7/5(토)~9(수) 울릉도~독도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명동)
5/2(금)~14(수) 체코, 폴란드, 메주고리에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9(주일) 포르투갈일주 (9일, 299만원)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4/7(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아시아나)
4/21(월) 특선 이탈리아 (11일, 499만원, 대한항공)
4/21(월) 일본 나가사키 (139만원)
4/28(월)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4/28(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눈꽃산행: 1/20(월)~22(수),
2/7(금)~9(주일), 2/21(금)~23(주일)
자연순례: 3/1(토)~3(월), 3/8(토)~10(월)
추차도포함: 3/13(목)~16(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2025년 정기 회년

올해 2025년은 25년마다 맞이하는 정기 회년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이 열리면서 회년이 시작되었고, 우리 교구도 12월 29(주일) 주교좌 의정부 성당에서 2025년 회년의 개막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본래 회년(Jubilee)은 구약성경에 바탕을 둔 제도로써, 그 이름은 회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숫염소의 뿔, [요벨] (yobel)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은 회년을 오십 년마다 지내도록 규정합니다. 7년이 일곱 번 지난 마흔아홉 번째 해의 다음 오십 번째 해를 ‘덤으로 주어진’ 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레위 25,8-22). 회년은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비록 실천하기 쉽진 않지만, 부채 탕감과 소유지 반환 그리고 경작지 휴경 등이 제시됩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최초로 회년을 지내게 한 인물은 보니파시오 8세 교황(1294-1303 재위)입니다. 그는 1300년에 회년을 선포하면서 100년마다 회년을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클레멘스 6세 교황(1342-1352 재위)은 로마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1343년 칙서를 통해 그 주기를 50년으로 줄였고, 바오로 2세 교황(1464-1471 재위)은 1470년 칙서를 통해 25년마다 회년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475년부터는 25년 주기로 회년을 지냅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 회년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정기 회년 외에도 특별 회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오 11세 교황(1922-1939 재위)은 1933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1900주년, 1983년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1978-2005 재위)가 그 1950주년을 기념하는 회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에 “자비의 특별 회년”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정기 회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와 그 구성원인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정 중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고한 희망을 안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번 회년을 지내면서 길 위에 있는 하느님 백성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하느님과 이웃과 창조물과 하나 되는 회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교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고 소망
하시는 모든 일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홍유선(임마누엘) 신부-

본당공지

■ 홍유선(임마누엘) 신부님 5지구 사제연수 참석

일 시: 20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사제연수 기간동안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형제회 1월 월례회의

일 시: 1월 12일 주일 교중 미사 후

공동체소식

■ 1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송순남, 최데레사, 박우길, 이용안, 최카타리나
이병섭, 조종대, 유발바라, 류정구, 이대순, 장근면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1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공지

■ 교무금 납부 및 책정

교무금은 성당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신자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직 교무금을 완납하지
못한 분들은 납부하여 주시고, 2025년도 교무금 책정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오늘은 교구 내 성전 부지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2월 23일 - 12월 29일)

교 무 금	8건	825,000원
주 일 헌 금		866,000원

■ 감 사 헌 금

홍유선	1,000,000원	김마리아	300,000원
오현주	2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1월 05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01월 12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윤병수(그레고리오), 석마리아	